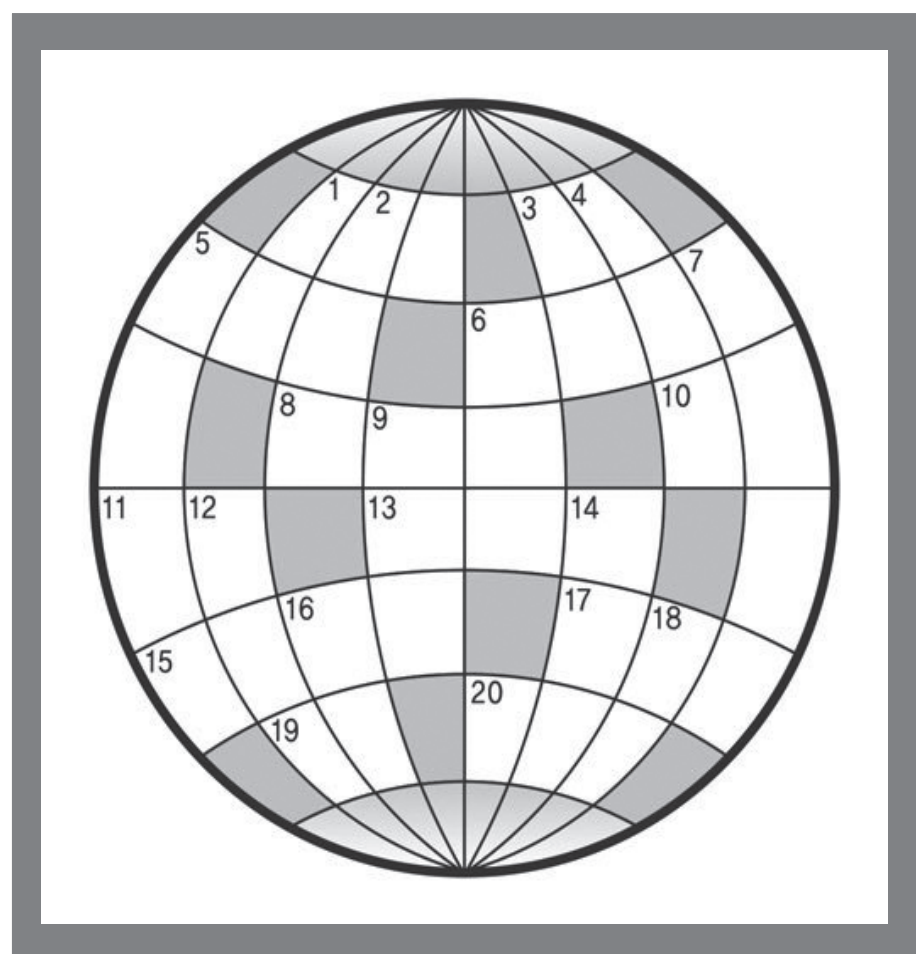


# { 심심풀이 낱말풀이 }



## <가로 열쇠>

- 1)도성의 정문으로, 남쪽에 있는 문. 국보 제1호인 승례문을 예전에 부르던 말.
- 3)일이 되어 가는 형편. 어떠한 일의 아릿한 기쁨이나 눈치. 낄새.
- 5)남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재산·명에 따위에 해를 끼친 사람.
- 6)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조처나 대우를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만들.
- 8)시장 시세가 변동하지 않거나 변동의 폭이 극히 적은 범위에 그치는 시세.
- 10)사람이 만든 명주실로 짠 비단.
- 11)실제의 것을 본떠서 시험적으로 해 봄. 또는 그런 일. ○○ 훈련.
- 13)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
- 15)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드리는 기도.
- 17)일정 기간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이는 군사적 행동의 이름을 일컫는 이름.
- 19)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굳게 내세움. 또는 그런 의견이나 주의.
- 20)우리나라의 국기.

## <세로 열쇠>

- 1)남쪽에 있는 바다.
- 2)주로 대학가나 단체에서 자신들의 주장이나 홍보를 위해 큰 글자로 써서 붙이는 게시물.
- 3)하늘이 무너질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이르는 말.
- 4)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문화와 생활수준이 아직 낮은 사람.
- 5)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기부금 따위를 모으는 일.
- 6)오늘의 아재 개그, 아내가 세수를 할 땀 솥을 마시지 않고, 수건을 대기하는 것이 남편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이라는 말은?
- 7)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아는 지혜.
- 9)무술의 하나. 맨손 또는 단도·검·창·봉동이 따위를 쓰며, 관권 지르기와 급소 지르기를 특기로 하는 호신술.
- 12)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옷과 음식과 집.
- 14)남을 속이거나 모략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거짓으로 꾸민 사건.
- 16)민간 항공기의 승무원 가운데 최고 책임자.
- 18)개인 일생의 사적인 기록. 위인 ○○.

정답은 B면 11페이지에..

## Calvin and Hobbes



EVERYONE TAKES ME FOR GRANTED! NOBODY PAYS ANY ATTENTION TO MY NEEDS!

IS IT TOO MUCH TO ASK FOR AN OCCASIONAL TOKEN GESTURE OF APPRECIATION?!

OK, HOW ABOUT A BIG HUG?  
COULD I HAVE 20 DOLLARS?

SEE?! I DON'T MATTER TO ANYONE! NOBODY CARES ABOUT ME!

10-14

## 오늘의 역사 (1999년 10월 16일)

### 한국군 상륙수부대 150여명 동티모르에 파병



한국군 상륙수부대 선발대 150명이 16일 동티모르에 처음으로 들어가 본격적인 평화유지 활동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 이후 호주 타운즈빌에서 현지적응 훈련을 받은 선발대는 호주 공군 C-130 수송기 세 대에 편승, 오전 6시 타운즈빌을 출발해 낮 12시쯤 동티모르 바우카오에 도착, 한국에서 갖고 간 전투식량으로 점심식사를 했다.

이어 세계 제대로 나눠 1제대는 오후 1시 다국적군의 CH-53 대형 헬기 세 대에 나눠 타고 평화유지 활동을 벌이게 될 동티모르 최동단 로스팔로스 로 떠나 본대(본대)가 목을 막사 등을 준비했다.

사진설명: 1999년 10월 17일 호주 바우카우 공항에 c-130수송기로 도착한 상륙수부대 선발대가 부대 기를 앞세우고 걸어나오고 있다.

#### 그해 오늘 무슨일이...(10월 16일)

- 2000년 한-미 미사일협상 타결로 사(射)거리 300Km 미사일 생산 가능
- 1999년 이미지,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수생활 40년 기념공연
- 1998년 북아일랜드의 존 휴-데이비드 트림블, 노벨평화상 수상
- 1998년 칠레의 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영국경찰에 전격 체포
- 1995년 전과법시행령 개정
- 1994년 장한나, 로스트로포비치 첼로콩쿠르에서 최우수상 수상
- 1994년 헬무트 콜, 독일 총리로 재 선임
- 1990년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평양서 개최
- 1984년 남아공의 흑인종교지도자 데스몬드 엠펠로 투투 주교, 노벨평화상 수상
- 1981년 동서고속도로(대전~광주 175km)기공, 후에 올림픽고속도로로 개명
- 1979년 이광요 싱가포르 수상 내한
- 1979년 서울 성수대교 개통
- 1978년 요한 바오로 2세, 제265대 교황으로 즉위
- 1975년 스페인령 사하라서 모로코 35만명 평화행진
- 1974년 경주 98호 고분서 신라순금고배(高杯) 출토
- 1964년 중국, 첫 원폭실험 성공
- 1963년 서독 아테나워 수상 사임, 후임에 부수상 에르하르트 취임
- 1963년 제5대 대통령선거, 박정희 당선
- 1962년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문학이론가 가스통 바슐라르 사망
- 1962년 한국-사우디아라비아, 국교수립
- 1960년 작곡가 현제명 별세
- 1956년 제3세대 프로그래밍 언어 ' 포트란' 발표
- 1952년 채플린 영화 '라임 라이트' 개봉
- 1951년 이집트, '1936년 조약' 파기를 주장하며 폭동, 반영(反英)감정 고조
- 1951년 남원에 공비출현, 기관차 전복시키고 200여명 납치
- 1946년 2차대전 독일전범 립벤도르프 등 10명 교수형
- 1945년 이승만 박사 환국
- 1793년 프랑스 마리 앙투아네트 단두대 처형

## Quote 영어 문장을 완성하라

Rearrange the words below to complete the quotes.

SUNRISE NIGHT DEFEAT NAVER HOPE PROBLEM

"There was \_\_\_\_ a \_\_\_\_ or a \_\_\_\_ that could \_\_\_\_ or \_\_\_\_."

-Bernard Williams

정답은 '이주의 영어한마디' 맨밑에..

### 이주의 영어 한마디

## 트럼프 美대통령의 독특한 말하기 스타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는 말은 종잡음(get the gist) 수가 없다. 자동차 산업 얘기하다가 갑자기 의약계의 입찰 절차(bidding procedures)로 건너뛰고, 난데없이(out of the blue) 우주사령부 장리를 자랑한다. 이런 독특한 화법(unique speaking style)은 읽기용이나 적절한 어구(sound bites) 사용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닌 데서 비롯한다. 사전 준비 없이 말하다 보니(speak off the cuff) 조리 없이 말을 뱉는다.

앞뒤 맞지 않는 이런 비논리성(illogicality)은 문어·구어 차이에 기인한다(stem from the discrepancy between written and spoken language).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데(be utterly incomprehensible)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이해가 된다고(make perfect sense to others) 한다. 본론 벗어나기와 뒤편 설수설에도 불구하고(despite his

digressions and rambles) 알아듣기 쉽다고 말한다.

뉴욕시에서의 성장 배경과 관련 있다는 설도 있다. 뉴욕에선 대화할 때 듣는 사람이 채워 넣을 여운을 남긴다고 한다. 트럼프가 문장 끝마무리 없이 사그라드는(trail off with no ending)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청중이 나머지 부분을 스스로 짐작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눈썹을 치켜뜨거나 어깨를 으쓱하며 애매한 암시를 하는(make vague implications with a raised eyebrow or a shrug) 것도 알아서 결론을 내려보려는 제의로 해석된다. 원고대로 읽는 연설보다 훨씬 친밀하게 느껴진다고(be more intimate than a scripted speech) 한다.

언어학자(linguist)들의 지적은 다르다. 조리 없는 문장과 짧은 토막토막(incoherent sentences and short snippets)은 산발적인 생각(scattered thoughts), 짧은 집중 능력(short span of atten-

tion), 지적 훈련과 분석 기술의 결여(lack of intellectual discipline and analytical skills)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화법이 먹히는 것은 오랜 세월을 걸쳐 유효성이 입증된 세일즈맨 방식(time-tested salesman's methods) 덕분이다. 사업으로 뼈가 굵은 그는 어떤 물건이든 누구에게나 팔아넘기는 수법에 능통하다. 청중은 트럼프가 남긴 문장 뒷부분 빈칸에 실직 두려움(fear of unemployment), 미국의 패권 상실(loss of its supremacy) 불안감 등을 스스로 채워 넣는다.

트럼프는 이런 불안을 자극하고 분노를 정당화한다(justify their anger). 그러면 청중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에 몰입해(be immersed in emotion) 반응한다. 트럼프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을 활용해(tap into their fear and insecurity) 공포를 분노로 분출하게 몰아간다.

그런 지지자들에게 "트럼프는 권력을 갈구하는(crave power) 자기 도취자일 뿐, 권력을 현명하게 행사할 지적 능력(intellectual capacity to exercise it wisely)도 없는 인물"이라고 말했다는 그 분노의 희생양이 되고 만다.

Answers: "There was never a night or a problem that could defeat sunrise or hope."